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2년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2% 감소, 전월대 비 1.7% 감소

○ 2012년 8월 생산은 제조업·서비스업에서는 증가하였으나 건설업에서는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함.

-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19.4%), 기계장비(-8.7%), 영상음향통신(-10.6%)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11.5%), 화학제품(6.5%), 1차 금속(3.4%)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0.3%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2.9%), 하수·폐기물처리(-0.9%), 협회·수리·개인(-0.6%), 금융·보험(-0.6%) 등은 감소하였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6.1%), 전문·과학·기술(2.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2.6%),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1.5%)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함.

○ 2012년 8월 소비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0.3%, 14.3%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등 내구재(3.5%)는 증가하였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4.2%),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9%)는 줄어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함.
- 설비투자는 일반 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4.3% 감소함.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공사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7.3%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재개

발, 발전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기계설치, 신규주택 등에서는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9.9% 감소함.

- 7월 동행종합지수는 광공업 생산지수는 감소하였으나 소매판매액지수,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6% 상승함.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은 증가하였으나 내수출하지수, 광공업 생산지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5p 하락하였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스피지수, 재고순환지표 등은 증가하였으나 소비자기대지수,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2p 하락함.

◆ 2012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0% 상승(생활물가지수 1.7% 상승)

- 2012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0(2010=100)으로 나타나 전월대비 0.7%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하여 지난달에 비해 0.8%p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기타상품 및 서비스(-4.0%), 통신(-1.5%) 부문만 하락하였고, 그 외 의류 및 신발(5.0%), 주택·수도·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09					2010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8월	1/4	2/4p	8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5.7	-6.1	4.3	16.2	-0.8	25.8	19.5	10.9	11.7	16.2	10.4	7.2	5.3	5.0	6.9	3.7	3.8	1.5	0.3(-0.7)
	제조업 생산	-16.5	-6.6	4.4	16.8	-0.9	26.8	20.2	11.2	11.9	16.3	10.6	7.4	5.1	5.3	7.0	3.6	4.2	1.5	0.3(-0.9)
	출하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3	11.9	7.2	4.9	3.5	6.7	2.8	3.3	1.5	-1.0(-3.1)
	내수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6.8	3.8	2.7	0.2	3.3	0.8	0.3	-1.4	-3.5(-4.9)
	수출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1	18.1	11.6	7.7	7.2	10.8	5.2	6.7	4.9	1.7(-1.0)
	서비스업생산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2.8	3.3	4.5	2.7	3.3	4.0	2.5	1.7	0.6(-0.3)
소비	소비재 판매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7	5.4	5.7	4.7	1.9	4.3	5.5	2.0	1.0	-0.3(-3.0)
투자	설비투자	-17.9	-12.9	-9.9	10.2	-8.2	25.5	24.5	29.3	13.5	24.2	5.4	4.8	-3.1	-4.7	0.7	-3.0	9.4	-0.8	-14.3(-13.9)
물가		3.9	2.8	2.0	2.4	2.8	2.7	2.6	2.9	3.6	3.0	4.8	4.2	4.8	4.0	4.0	3.8	3.0	2.4	2.0(0.7)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9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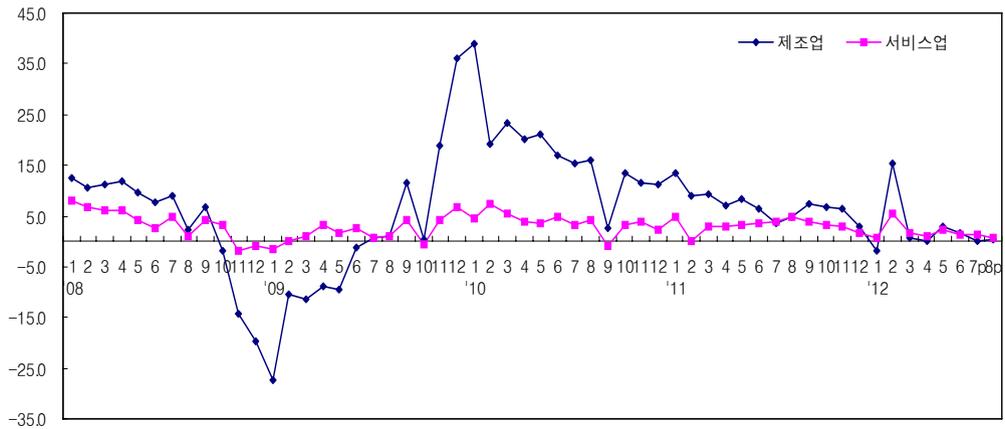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전기·연료(4.5%),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4.0%), 교통(3.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2.6%), 교육(1.8%), 주류 및 담배(1.6%), 음식 및 숙박(0.4%) 부문 등은 상승함.

- 2012년 9월 생활물가지수는 107.1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1.0%, 전년동월대비 1.7% 각각 상승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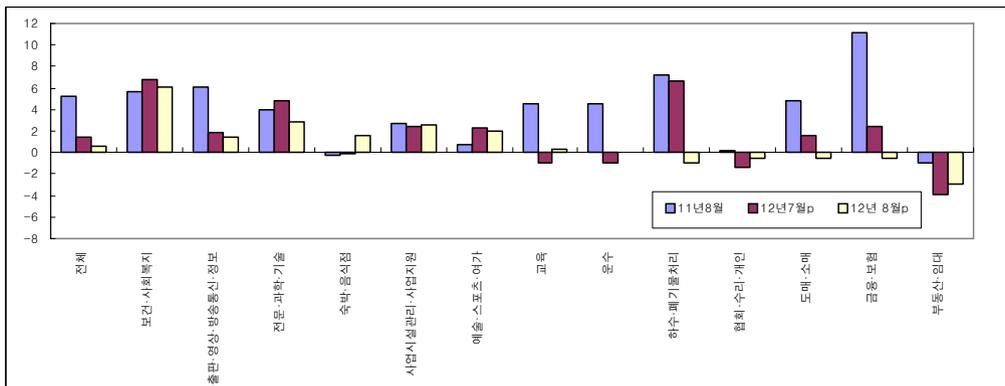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2012. 8), 『2012년 8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 지속**

- 2012년 3/4분기 중 경제활동인구는 25,760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91천 명(1.9%)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013천 명으로 268천 명(1.8%) 증가하였고, 여성은 10,746천 명으로 223천 명(2.1%) 증가하였음.
- 2012년 3/4분기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전년동기대비 0.3%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3.7%)은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하였고, 여성(50.5%)은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함(그림 3 좌측 참조).
- 2012년 3/4분기 중 고용률은 60.0%로 전년동기대비 0.5%p 증가함.
 - 남성의 고용률은 71.4%로 전년동기대비 0.5%p 상승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9.1%로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하였음(그림 3 우측 참조).
- 2012년 3/4분기 중 취업자는 24,98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06천 명(2.1%)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532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84천 명(2.0%)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45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23천 명(2.2%) 증가하였음(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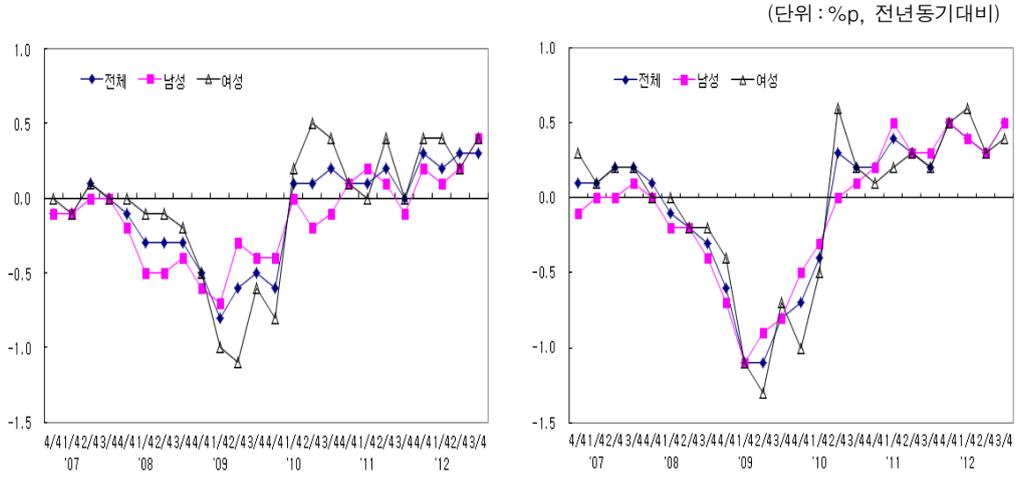
〈표 2〉 최근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2011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경제활동인구	24,488 (1.3)	25,437 (1.6)	25,269 (1.1)	25,076 (0.7)	25,202 (1.6)	24,873 (1.6)	25,844 (1.6)	25,760 (1.9)	25,623 (1.4)	25,755 (2.7)
참가율	59.9	62.0	61.5	61.0	61.1	60.1	62.3	61.8	61.5	61.8
취업자	23,459 (1.8)	24,572 (1.7)	24,483 (1.5)	24,318 (1.1)	24,462 (2.0)	23,927 (2.0)	25,003 (1.8)	24,989 (2.1)	24,859 (1.5)	25,003 (2.8)
고용률	57.4	59.9	59.5	59.1	59.4	57.8	60.2	60.0	59.7	60.0
실업자	1,028	865	786	758	740	947	841	770	764	752
실업률	3.9	3.4	3.1	3.0	2.9	3.8	3.3	3.0	3.0	2.9
비경제활동인구	16,392 (0.8)	15,559 (0.4)	15,847 (1.2)	16,065 (1.9)	16,014 (0.3)	16,495 (0.6)	15,669 (0.7)	15,904 (0.4)	16,042 (1.1)	15,942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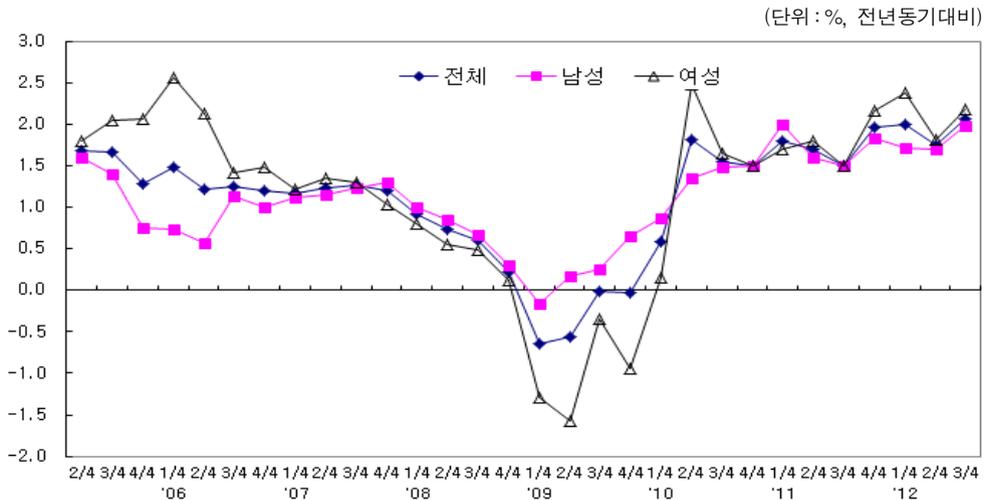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2012. 10), 『2012년 9월 고용동향』.

[그림 3]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자료: 통계청 KOSIS.

○ 2012년 3/4분기 중 실업자는 770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6천 명(-2.0%)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0%로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하였음.

- 남성 실업자는 482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6천 명(-3.2%)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289천 명으로 전년동기와 동일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2%로 전년동기대비 0.2%p 감소하였고, 여성은 2.7%로 전년동기와 동일하였음.

- 2012년 3/4분기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90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7천 명(0.4%)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4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천 명(-0.2%) 감소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55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7천 명(0.6%)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05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2천 명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증가

- 2012년 3/4분기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분기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299천 명, 3.5%),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114천 명, 2.1%), 제조업(85천 명, 2.1%), 건설업(17천 명, 0.9%), 농림어업(2천 명, 0.1%)에서 증가한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12천 명, -0.4%)에서는 감소함.
 - 2011년 3/4분기 이래 지속되었던 제조업 감소가 증가로 반전되었음(그림 5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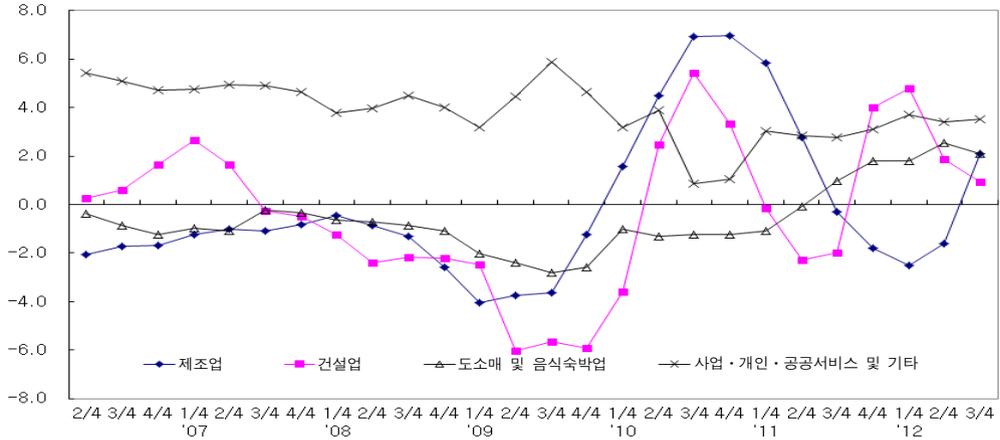
	2011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	()	()		()	()	()	()		
전 산업	23,459 (1.8)	24,572 (1.7)	24,483 (1.5)	24,318 (1.1)	24,462 (2.0)	23,927 (2.0)	25,003 (1.8)	24,989 (2.1)	24,495 (1.5)	25,003 (2.8)
농림어업	1,207 (-2.3)	1,736 (0.2)	1,704 (-2.9)	1,698 (-3.3)	1,521 (-1.5)	1,176 (-2.6)	1,713 (-1.4)	1,706 (0.1)	1,694 (-1.1)	1,711 (0.8)
제조업	4,139 (5.8)	4,127 (2.8)	4,041 (-0.3)	4,014 (-1.2)	4,056 (-1.8)	4,037 (-2.5)	4,061 (-1.6)	4,126 (2.1)	4,111 (2.0)	4,153 (3.5)
건설업	1,641 (-0.2)	1,774 (-2.3)	1,755 (-2.0)	1,723 (-2.8)	1,832 (4.0)	1,721 (4.8)	1,807 (1.9)	1,772 (0.9)	1,753 (-2.0)	1,781 (3.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471 (-1.1)	5,457 (-0.1)	5,496 (1.0)	5,420 (0.8)	5,542 (1.8)	5,571 (1.8)	5,596 (2.6)	5,610 (2.1)	5,609 (2.2)	5,585 (3.0)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및 기타	8,097 (3.0)	8,529 (2.8)	8,473 (2.8)	8,450 (2.5)	8,486 (3.1)	8,398 (3.7)	8,820 (3.4)	8,772 (3.5)	8,710 (3.1)	8,768 (3.8)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880 (1.6)	2,933 (3.6)	3,001 (6.6)	3,002 (6.1)	3,011 (5.5)	3,011 (4.5)	2,991 (2.0)	2,990 (-0.4)	2,968 (-1.4)	2,991 (-0.4)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임.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2. 10), 『2012년 9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상용직 중심 취업자 증가 지속

○ 2012년 3/4분기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15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9천 명(2.7%)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83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17천 명(1.8%)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216천 명으로 485천 명(4.5%)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992천 명으로 79천 명(-1.6%) 감소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627천 명으로 89천 명(-5.2%)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6 좌측 참조).

－ 고용주는 1,538천 명으로 38천 명(2.5%) 증가하였고, 자영업자는 4,285천 명으로 105천 명(2.5%) 증가하였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1,331천 명으로 46천 명(3.6%) 증가하였음.

－ 2011년 3/4분기 이후 고용주 및 자영업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그림 6 우측 참조).

○ 2012년 3/4분기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722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742천 명(-44.2%)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770천 명으로 4,352천 명(28.2%) 증가하였음.

－ 큰 폭의 36시간 미만 취업자 감소는 지난해 3/4분기 조사시점에 추석연휴 등이 겹쳐 생긴 일시적 현상임.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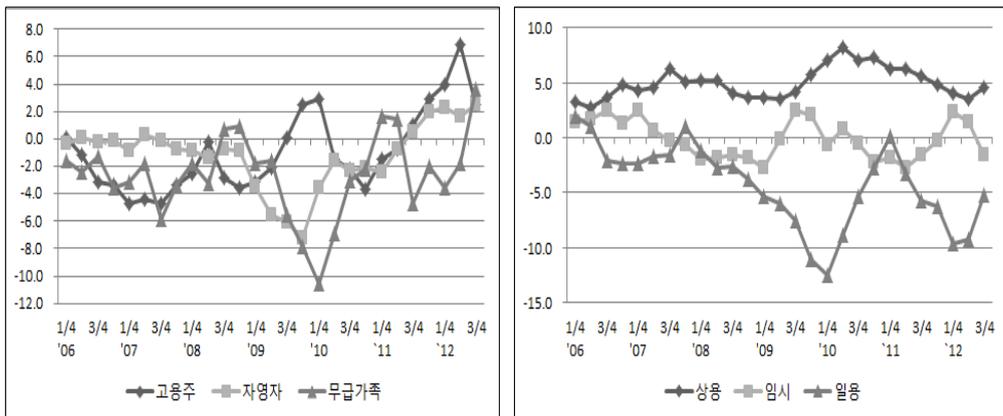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11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전 체	23,459 (1.8)	24,572 (1.7)	24,483 (1.5)	24,318 (1.1)	24,462 (2.0)	23,927 (2.0)	25,003 (1.8)	24,989 (2.1)	24,495 (1.5)	25,003 (2.8)
비임금근로자	6,542 (-1.5)	7,004 (-0.3)	6,965 (-0.4)	6,940 (-0.2)	6,878 (1.5)	6,650 (1.6)	7,154 (2.1)	7,154 (2.7)	7,125 (2.0)	7,141 (2.9)
자영업주	5,399 (-2.1)	5,657 (-0.7)	5,680 (0.6)	5,692 (1.6)	5,639 (2.3)	5,548 (2.8)	5,830 (3.1)	5,823 (2.5)	5,803 (2.2)	5,803 (1.9)
무급가족종사자	1,143 (1.7)	1,348 (1.5)	1,285 (-4.7)	1,248 (-7.3)	1,239 (-2.0)	1,102 (-3.6)	1,324 (-1.8)	1,331 (3.6)	1,322 (1.3)	1,338 (7.2)
임금근로자	16,917 (3.2)	17,568 (2.5)	17,518 (2.3)	17,378 (1.6)	17,585 (2.2)	17,277 (2.1)	17,849 (1.6)	17,836 (1.8)	17,734 (1.3)	17,862 (2.8)
상용근로자	10,413 (6.2)	10,681 (6.2)	10,731 (5.6)	10,764 (5.4)	10,820 (4.8)	10,825 (4.0)	11,059 (3.5)	11,216 (4.5)	11,203 (4.6)	11,291 (4.9)
임시근로자	4,804 (-1.8)	5,041 (-2.7)	5,072 (-1.5)	5,047 (-1.2)	5,042 (-0.2)	4,914 (2.3)	5,114 (1.4)	4,992 (-1.6)	4,935 (-1.9)	4,961 (-1.7)
일용근로자	1,701 (0.1)	1,846 (-3.3)	1,716 (-5.7)	1,567 (-11.9)	1,723 (-6.3)	1,538 (-9.6)	1,675 (-9.3)	1,627 (-5.2)	1,595 (-9.8)	1,610 (2.7)
36시간 미만	3,246 (-33.1)	3,210 (0.4)	8,464 (154.2)	15,672 (419.1)	3,217 (4.1)	3,313 (2.1)	3,284 (2.3)	4,722 (-44.2)	7,275 (18.1)	3,327 (-78.8)
36시간 이상	19,739 (11.7)	21,067 (1.7)	15,419 (-24.3)	8,050 (-61.2)	20,937 (1.5)	20,081 (1.7)	21,425 (1.7)	19,770 (28.2)	16,837 (-4.4)	21,340 (165.1)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2012. 10), 『2012년 9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우) 및 비임금근로자(좌)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전년동기대비 고졸 이하 실업률 감소

- 2012년 3/4분기 중 연령별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15~29세(6.8%, 0.1%p), 50대(2.2%, 0.1%p)에서 증가함.
 - 30대(2.8%, -0.4%p)는 감소하고, 40대(2.0%, 0.0%p)는 전년동기와 동일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중졸 이하(2.1%, -0.2%p), 고졸(3.4%, -0.3%p)에서는 감소하고, 대졸 이상(3.0%, 0.1%p)은 증가함.
- 2012년 3/4분기 중 전체 실업자 770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3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천 명 감소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34천 명으로 7천 명 감소하였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

	2011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전 체	1,028(4.2)	865(3.4)	786(3.1)	758(3.0)	740(2.9)	947(3.8)	841(3.3)	770(3.0)	764(3.0)	752(2.9)
15~29세	372(8.8)	332(7.9)	284(6.7)	256(6.3)	292(7.1)	346(8.2)	341(8.1)	283(6.8)	266(6.4)	270(6.7)
30~39세	237(4.0)	211(3.5)	189(3.2)	182(3.1)	171(2.9)	190(3.2)	188(3.2)	166(2.8)	165(2.8)	161(2.7)
40~49세	167(2.5)	145(2.1)	138(2.0)	137(2.0)	131(1.9)	164(2.4)	135(2.0)	133(2.0)	137(2.0)	140(2.1)
50~59세	133(2.7)	107(2.0)	108(2.1)	115(2.2)	94(1.8)	124(2.3)	112(2.0)	123(2.2)	126(2.3)	124(2.2)
60세 이상	119(4.5)	70(2.3)	67(2.1)	68(2.2)	53(1.8)	124(4.4)	66(2.0)	65(1.9)	70(2.1)	57(1.7)
중졸 이하	195(4.1)	112(2.1)	119(2.3)	134(2.6)	108(2.1)	187(4.0)	112(2.2)	106(2.1)	105(2.1)	108(2.1)
고졸	465(4.6)	408(4.0)	372(3.7)	335(3.4)	349(3.5)	408(4.1)	356(3.5)	350(3.4)	347(3.4)	331(3.3)
대졸 이상	369(3.8)	345(3.4)	296(2.9)	289(2.9)	284(2.8)	352(3.4)	373(3.5)	314(3.0)	312(3.0)	313(3.0)
취업무경험실업자	52	45	45	38	44	58	48	36	33	33
취업유경험실업자	977	820	741	720	696	889	793	734	730	719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임.
 자료 : 통계청(2012. 10), 『2012년 9월 고용동향』.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2년 7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3.4% 상승

- 2012년 7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96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2,898천 원) 3.4%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5.6% 상승해 2,475천 원을 기록함.
 - 반면,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6% 하락하여 181천 원을 기록하였고, 특별급여 증가율은 7.2% 하락하여 513천 원을 기록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2년 7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의 상승에 힘입어 2011년 7월 대비 2.9% 상승한 3,169천 원을 기록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5.0% 상승한 1,304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2년 1~7월 누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51천 원으로 전년동누계(2,785천 원)대비 6.0%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1년 1~7월 누계 대비 5.9% 상승한 3,125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 가운데 정액급여는 2011년 1~7월 누계 대비 5.7%, 초과급여는 3.1%, 특별급여는 7.8% 상승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2011년 1~7월 누계 대비 8.5% 상승한 1,283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2년 7월 실질임금은 1.8% 증가함.
 - 2012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1.8%를 기록함(그림 7 참조).
 - 2012년 1~7월 누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3.8%를 기록함.

〈표 6〉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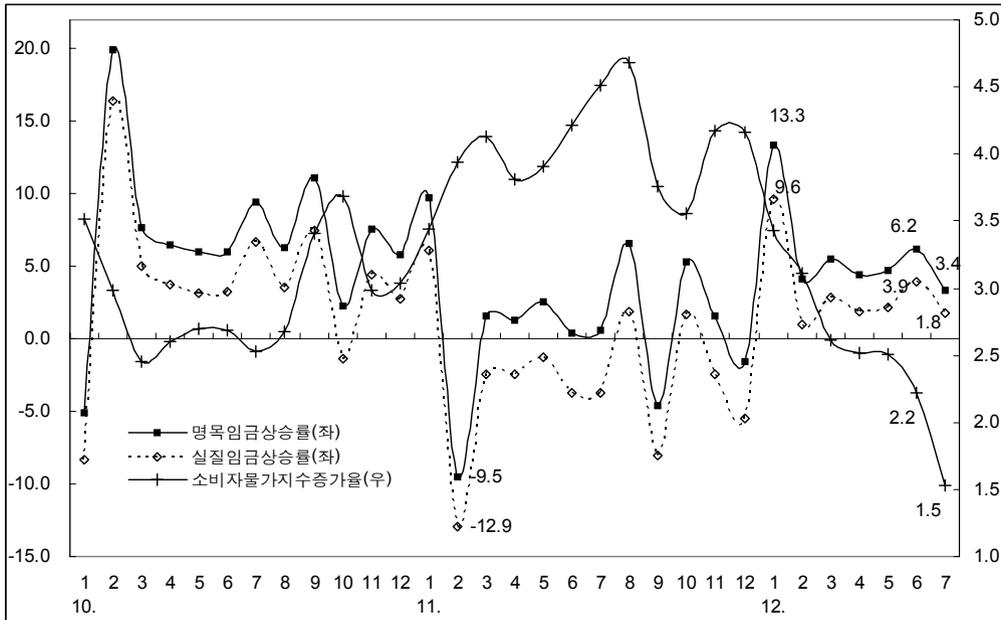
(단위: 천 원, %, 2010=100.0)

	2009	2010	2011	2012				
				1~7월 누계	7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636 (2.6)	2,816 (6.8)	2,844 (1.0)	2,785 (0.8)	2,898 (0.6)	2,951 (6.0)	2,996 (3.4)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2,863 (2.2)	3,047 (6.4)	3,019 (-0.9)	2,952 (-1.2)	3,079 (-1.2)	3,169 (2.9)	
	정액급여	2,139 (4.0)	2,234 (4.5)	2,341 (4.8)	2,317 (4.4)	2,344 (5.0)	2,449 (5.7)	2,475 (5.6)
	초과급여	175 (-2.2)	196 (12.2)	179 (-8.4)	176 (-7.8)	182 (-7.2)	182 (3.1)	181 (-0.6)
	특별급여	550 (-2.8)	617 (12.3)	498 (-19.3)	458 (-20.7)	553 (-19.8)	494 (7.8)	513 (-7.2)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073 (1.9)	1,056 (-1.6)	1,215 (15.1)	1,183 (11.2)	1,242 (12.7)	1,283 (8.5)	1,304 (5.0)	
소비자물가지수	97.1 (2.8)	100.0 (2.9)	104.0 (4.0)	103.4 (4.0)	104.3 (4.5)	106.0 (2.6)	105.9 (1.5)	
실질임금증가율	-0.1	3.8	-2.9	-3.0	-3.7	3.8	1.8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2010=10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7월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상승률 증가

- 2012년 7월 기준 광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임금상승이 높음.
 - 2012년 7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광업(19.3%), 부동산업 및 임대업(13.0%), 운수업(11.2%) 등에서 임금상승률이 크게 나타남.
 - 반면,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5%)은 하락함.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남.
- 2012년 1~7월 누계 기준 부동산 및 임대업의 임금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년 1~7월 누계 기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임금이 증가함.
 -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10.4%), 운수업(9.0%), 도매 및 소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2%) 등에서 두드러짐.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7월 누계	7월	1~7월 누계	7월
전 산업	2,816 (6.8)	2,844 (1.0)	2,785 (0.8)	2,898 (0.6)	2,951 (6.0)	2,996 (3.4)
광업	3,000 (7.3)	3,309(10.3)	3,316(10.3)	3,263(-5.2)	3,535 (6.6)	3,892(19.3)
제조업	2,985 (9.1)	3,034 (1.6)	2,949 (2.1)	3,248(5.2)	3,155 (7.0)	3,252 (0.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55 (7.0)	5,482 (0.5)	5,137(-0.8)	4,822(6.0)	5,114(-0.4)	4,877 (1.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41 (5.2)	2,488 (1.9)	2,405 (1.3)	2,485 (1.0)	2,562 (6.6)	2,589 (4.2)
건설업	1,944 (7.9)	2,181(12.2)	2,169(13.3)	2,138 (15.2)	2,255 (3.9)	2,233 (4.4)
도매 및 소매업	2,769 (7.1)	2,942 (6.3)	2,837 (4.7)	2,953 (6.8)	3,042 (7.2)	3,137 (6.2)
운수업	2,381 (5.4)	2,393 (0.5)	2,322 (0.9)	2,358 (3.7)	2,531 (9.0)	2,621 (11.2)
숙박 및 음식점업	1,462 (5.0)	1,653(13.0)	1,626(13.3)	1,638 (13.7)	1,730 (6.4)	1,758 (7.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385 (4.7)	3,692 (9.1)	3,673 (9.9)	3,687 (6.0)	3,840 (4.6)	3,794 (2.9)
금융 및 보험업	4,680 (4.7)	4,771 (1.9)	4,793 (0.8)	4,774 (0.9)	5,037 (5.1)	4,804 (0.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65 (4.3)	2,017 (2.6)	1,994 (0.7)	2,019 (3.1)	2,200(10.4)	2,281 (13.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57 (6.9)	3,870(-2.2)	3,692(-4.6)	3,747(-14.6)	3,958 (7.2)	3,873 (3.3)
사업서비스업	1,848 (8.2)	1,700(-8.0)	1,657(-9.3)	1,670(-11.8)	1,753 (5.8)	1,766 (5.8)
교육서비스업	3,157 (1.4)	2,985(-5.4)	3,033(-5.3)	3,361 (-4.5)	3,163 (4.3)	3,555 (5.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94 (2.4)	2,490(-4.0)	2,434(-4.9)	2,462 (-5.0)	2,581 (6.1)	2,569 (4.4)
여가관련서비스업	2,107 (0.9)	2,130 (1.1)	2,095 (1.4)	2,205 (3.1)	2,168 (3.4)	2,370 (7.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02 (4.0)	2,185 (3.9)	2,152 (3.6)	2,179 (1.1)	2,198 (2.1)	2,124(-2.5)

주 :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 2.8% 하락

- 2012년 7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하락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2012년 7월 기준 2,85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5% 상승하였으며, 정액급여(6.0%), 초과급여(3.4%), 특별급여(3.4%) 모두 증가한 영향임.
 -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2012년 7월 상용임금총액은 4,314천 원으로 2011년 7월 대비 2.8% 하락하였으며, 이는 초과급여(-8.4%)와 특별급여(-17.3%) 하락의 영향임.
- 2012년 1~7월 누계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6.4%)과 3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상승률(3.4%)은 모두 플러스 증가를 기록함.
 - 그러나 300인 이상 규모의 초과급여(-2.3%)는 하락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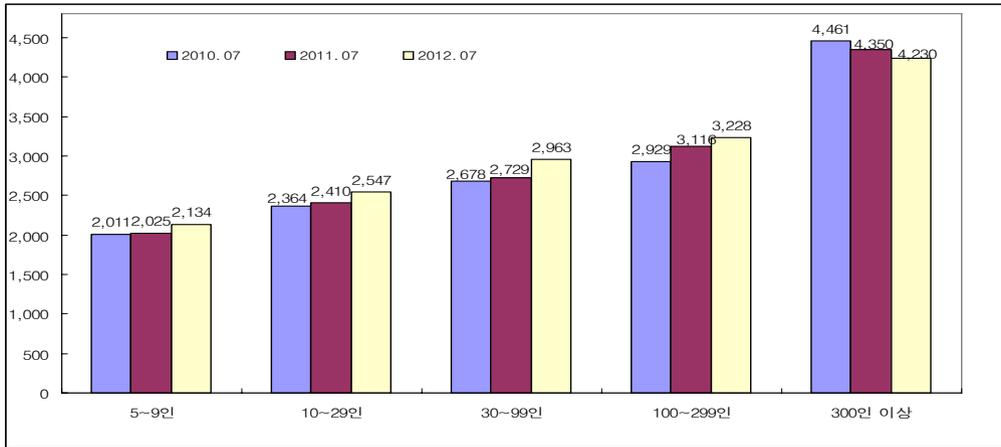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7월 누계		7월	
				1~7월 누계	7월	1~7월 누계	7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047 (6.4)	3,019 (-0.9)	2,952 (-1.2)	3,079 (-1.2)	3,125 (5.9)	3,169 (2.9)
	정액급여	2,234 (4.5)	2,341 (4.8)	2,317 (4.4)	2,344 (5.0)	2,449 (5.7)	2,475 (5.6)
	초과급여	196 (12.2)	179 (-8.4)	176 (-7.8)	182 (-7.2)	182 (3.1)	181 (-0.6)
	특별급여	617 (12.3)	498 (-19.3)	458 (-20.7)	553 (-19.8)	494 (7.8)	513 (-7.2)
	비상용임금총액	1,056(-1.6)	1,215(15.1)	1,183 (11.2)	1,242 (12.7)	1,283 (8.5)	1,304 (5.0)
5~299인	상용임금총액	2,699 (5.5)	2,675 (-0.9)	2,625 (-1.0)	2,705 (-0.5)	2,794 (6.4)	2,854 (5.5)
	정액급여	2,082 (4.3)	2,204 (5.9)	2,181 (5.5)	2,208 (5.8)	2,316 (6.2)	2,340 (6.0)
	초과급여	176 (13.6)	150 (-14.5)	148 (-14.4)	153 (-15.1)	156 (5.2)	158 (3.4)
	특별급여	441 (8.4)	321 (-27.3)	296 (-27.9)	345 (-23.6)	323 (9.1)	357 (3.4)
	비상용임금총액	1,059(-1.6)	1,216(14.8)	1,181 (11.0)	1,225 (12.0)	1,290 (9.2)	1,291 (5.4)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291 (9.1)	4,273 (-0.4)	4,178 (-0.3)	4,439 (-2.6)	4,322 (3.4)	4,314 (-2.8)
	정액급여	2,779 (5.2)	2,842 (2.3)	2,826 (2.5)	2,842 (3.1)	2,931 (3.7)	2,967 (4.4)
	초과급여	268 (9.6)	286 (6.7)	283 (10.2)	290 (12.8)	277 (-2.3)	266 (-8.4)
	특별급여	1,245 (18.7)	1,146 (-8.0)	1,069 (-9.1)	1,307 (-15.4)	1,114 (4.3)	1,081 (-17.3)
	비상용임금총액	1,025(-0.3)	1,208 (17.8)	1,200 (12.9)	1,502 (20.2)	1,205 (0.4)	1,495 (-0.4)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8]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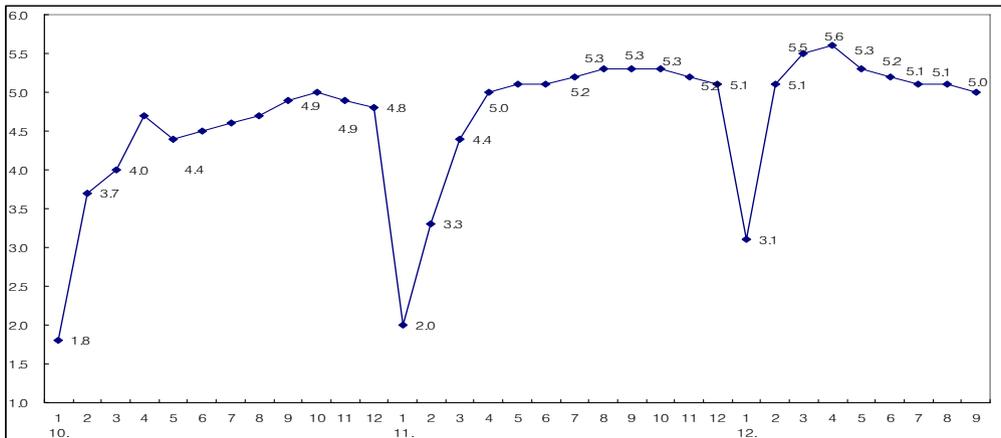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9월 협약임금 인상률 5.0%

- 2012년 9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5.0%로 2011년 9월 인상률(5.3%)에 비해 0.3%p 하락함.
 - 2012년 7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5.1%로 2011년 7월 인상률(5.2%)에 비해 0.1%p 하락함.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2년 7월 근로시간, 0.8% 증가

- 2012년 7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함.
 - 2012년 7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80.4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179.0시간)에 비해 1.4시간(0.8%) 증가함(표 9 참조).
 - 근로시간의 증가는 2011년 7월에 비해 월력상 근로일이 1일 많은 데 기인함.
- 2012년 1~7월 누계 근로시간은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함.
 - 2012년 1~7월 누계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5.2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누계(175.6시간)에 비해 0.4시간(0.2%) 감소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

	2010	2011	2012			
			1~7월 누계		7월	
			1~7월 누계	7월	1~7월 누계	7월
전체 근로시간	176.7(0.3)	176.3(-0.2)	175.6(-0.3)	179.0(-2.3)	175.2(-0.2)	180.4(0.8)
상용총근로시간	184.7(0.2)	182.1(-1.4)	181.3(-1.5)	184.6(-3.6)	180.8(-0.3)	185.7(0.6)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8.3(-0.6)	168.5(0.1)	167.9(0.1)	170.8(-2.3)	167.8(-0.1)	173.2(1.4)
상용초과근로시간	16.4(8.6)	13.6(-17.1)	13.4(-17.8)	13.8(-17.4)	13.0(-3.0)	12.5(-9.4)
비상용근로시간	115.4(-3.3)	122.5(6.2)	121.7(3.9)	128.2(5.6)	121.2(-0.4)	128.0(-0.2)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7월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근로시간 증가

- 2012년 7월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2년 7월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사업서비스업(180.1시간, 5.2%), 금융 및 보험업(171.7시간, 3.66%)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반면, 2012년 7월 근로시간이 감소한 산업은 제조업(190.5시간, -1.9%),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77.3시간, -1.9%)임.
 - 2012년 7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98.3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건설업(157.7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 2012년 1~7월 누계 근로시간은 사업서비스업, 운수업에서 증가함.
 - 2012년 1~7월 누계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사업서비스업(173.5시간, 2.6%), 운수업(182.5시간, 2.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5.0, 1.7%)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반면, 건설업(151.5시간, -1.8%), 제조업(187.8시간, -1.4%)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0	2011	2012			
			1~7월 누계		7월	
			1~7월 누계	7월	1~7월 누계	7월
전 산업	176.7(0.3)	176.3(-0.2)	175.6(-0.3)	179.0(-2.3)	175.2(-0.2)	180.4(0.8)
광업	188.1(0.3)	186.9(-0.6)	186.3(-0.3)	190.8(-3.1)	186.4(0.1)	190.4(-0.2)
제조업	192.1(1.9)	190.6(-0.8)	190.5(-0.7)	194.2(-3.2)	187.8(-1.4)	190.5(-1.9)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6.9(-0.6)	177.1(0.1)	176.0(-0.1)	180.8(-1.3)	176.1(0.1)	177.3(-1.9)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92.9(-0.6)	186.2(-3.5)	185.3(-3.7)	189.1(-5.6)	185.7(0.2)	190.4(0.7)
건설업	146.1(-0.7)	153.9(5.3)	154.2(4.8)	154.5(3.6)	151.5(-1.8)	157.7(2.1)
도매 및 소매업	177.2(-1.0)	175.1(-1.2)	174.3(-1.5)	178.1(-3.2)	174.7(0.2)	181.4(1.9)
운수업	184.6(0.1)	181.6(-1.6)	178.9(-2.8)	184.2(-3.3)	182.5(2.0)	187.8(2.0)
숙박 및 음식점업	163.7(-0.4)	186.2(13.7)	186.7(15.1)	189.0(12.4)	188.6(1.0)	188.5(-0.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6.2(-0.4)	164.5(-1.0)	163.6(-1.3)	167.5(-2.7)	164.3(0.4)	172.9(3.2)
금융 및 보험업	165.3(-0.9)	163.6(-1.0)	161.8(-1.6)	165.8(-2.6)	163.9(1.3)	171.7(3.6)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0.4(-0.8)	194.2(-3.1)	193.7(-3.2)	196.5(-4.8)	195.2(0.8)	198.3(0.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6.3(-0.8)	166.2(-0.1)	164.8(-0.4)	168.5(-1.6)	165.9(0.7)	172.7(2.5)
사업서비스업	180.1(0.6)	172.1(-4.4)	169.1(-5.2)	171.2(-8.4)	173.5(2.6)	180.1(5.2)
교육서비스업	149.9(-2.5)	152.9(2.0)	151.8(1.9)	160.5(2.2)	152.4(0.4)	166.1(3.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6.5(0.1)	173.5(-1.7)	172.0(-2.0)	174.7(-4.0)	175.0(1.7)	180.9(3.5)
여가관련 서비스업	158.7(-1.8)	157.1(-1.0)	156.5(-1.3)	163.7(-0.2)	157.6(0.7)	164.4(0.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3.9(-0.9)	173.6(-0.2)	174.9(0.3)	180.2(-2.7)	170.0(-2.8)	173.1(-3.9)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7월 5~299인 사업체 근로시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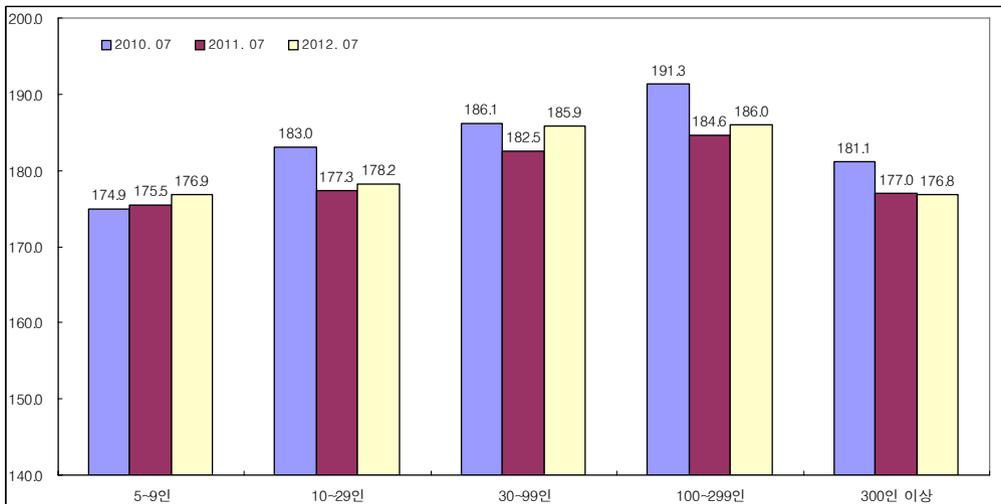
○ 2012년 7월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5~299인 사업체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6.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8%, 10~2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8.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5%, 30~9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85.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9%, 100~29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86.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함(그림 10 참조).

-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6.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함.
- 한편 2012년 1~7월 누계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은 5~9인, 10~29인, 300인 이상 규모에서 감소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3.3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1%, 10~2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2.3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1.3%,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2.3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2% 감소함.
 - 반면, 30~9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9.8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6%, 100~29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80.5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5% 증가함.

[그림 10]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제18대 대통령선거 주요 예비후보들의 노동정책 공약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각각 일자리와 노동문제에 관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박근혜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내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행복한 일자리추진단을 구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함.
 - 문재인 후보는 10월 18일 선거대책위원회 내 노동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일자리 혁명을 이루고 정리하고 요건 강화 및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함.
 - 안철수 후보는 사회적 대화로 얽힌 현안을 풀겠다는 내용의 고용노동정책을 발표하고 22일 노동연대센터를 발족시킴.
- 다음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의 10대 공약 중 노동정책에 관한 공약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후보자	공 약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공약 및 목표	* 공약: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 목표: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
	일자리대책	* 공약: 차별 없는 고용시장 * 목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
	비정규직	- 임기 동안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의 변화 -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 -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 - 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
		-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관행을 정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실현. 비정규직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 - 국가, 지자체, 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 -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기간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유도 - 대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여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 개선

후보자	공 약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공약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 일자리 혁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 목표: 300만 개(연간 60만 개)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달성하여 중산층 비율을 80% 수준으로 복원 ·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나누어 지키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 · '일자리 혁명'을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활력소진, 근로빈곤, 악순환의 4대 함정을 극복하고 '고용기적'을 달성
	일자리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적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중심의 경제·산업정책 개편, 사회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 창조적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IT/BT/NT/ST/CT 등 최첨단 기술에 기반한 산업육성,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연구 역량 강화,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생태적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신재생에너지 및 기술투자,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사업, 생태 및 유기농업 등 친환경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협력적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청년과 퇴직자 간 세대융합형 창업 및 창직 지원, 남북경제연합·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으로 일자리 나누기 -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세대공존형 일자리 나누기 - 노인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100세 사회 대책기구' 설립
	비정규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산업 비정규직 비중 절반 이하로 감축 -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과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보장, 사회보험 적용, 근로기준 준수)" 확립 -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 및 적용제외 축소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결정 - 4대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법정 정년 60세 도입 및 단계적 정년 연장 -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재고용의무 강화 -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및 이·전직지원 공적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무소속 안철수 후보	공약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 목표: -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 실현 · 경제민주화, 복지, 혁신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 -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 및 사회통합 실현
	일자리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동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고성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고용보조금(추가 고용 1인당 연간 1,000만 원 이상) 지원 ·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중소기업청 확대 개편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 추진 -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녹색경제, 북방경제 시대의 신성장산업 개발 및 정보통신, 법률, 의료 등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후보자	공 약	
		- 문화예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육성 ·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및 아시아 지역 문화허브 구축 - 벤처 생태계 정비를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 소프트웨어와 문화콘텐츠에 대한 청년창업 활성화 및 투자멘토링제 구축 · 엔젤투자 등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비정규직	-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정규직 전환 확대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 공공부문에서의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 정규직 사용 · 민간부문은 고용공시제를 통해 정규직화 유도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2012. 10. 24)한 각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을 재구성.

◆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컨설팅 의혹을 둘러싼 논란 심화

- 지난 9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다수의 기업들에게 노조파괴 컨설팅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
 - 이날 청문회에서는 창조컨설팅이 지난 7년 동안 사용자 측과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14개 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하고, 이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야당의 한 의원은 창조컨설팅이 정부기관과 접촉 및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함.
 - 2010년 파업과 직장폐쇄로 논란이 된 자동차 부품회사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문건과 창조컨설팅의 내부 문건이 거의 동일하다며 창조컨설팅과 고용노동부 간의 공모 의혹을 제기함.
 - 또한 10월 1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창조컨설팅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과 공모하여 유성기업, 발레오전장, 상신브레이크 사건을 사용자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 이에 고용노동부는 창조컨설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창조컨설팅 심모 대표와 김모 전무의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하고 창조컨설팅 설립인가를 취소함.
 - 고용노동부는 창조컨설팅이 용역계약을 맺은 회사에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하도록 지도·상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컨설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설명함. 아울러 고용노동부 감독 과정에서 창조컨설팅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공인노무사법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함.
 - 또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18일 창조컨설팅과 계열사인 휴먼밸류컨설팅·창조시

너지·비전컨설팅을 압수수색하여 이들이 유성기업·발레오전장·상신브레이크 등의 노조활동에 개입해 노조를 무력화하였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련 부처의 연루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함.
 - 이들은 “창조컨설팅의 대표자격 박탈이나 설립인가 취소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고용노동부, 검찰 등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전국 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집회와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힘.

◆ **발전노조 와해 의혹을 둘러싼 논란**

- 10월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이 자회사인 5개 발전회사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데 개입한 정황이 있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음.
 - 야당의 한 의원은 회사 측이 노조 동향을 정부 유관부처에 보고하고, 심지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가 모여 발전노조 대응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함.
 - 발전노조 관계자는 “한국전력이 발전회사의 경영평가 지표로 민주노총 탈퇴 노력을 제시함으로써 발전노조 문제에 대한 지배·개입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회사 측에 협조적인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한 발전회사 관계자는 “당시 내부 구성원 사이에 이미 기업별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회사가 이를 추진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함.
-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 노동계는 발전노조 와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촉구함.
 -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고용노동부, 검찰, 경찰 등의 공모, 기획, 주도로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진 바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정부와 회사 측이 행한 불법과 탈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함.

◆ **한진중공업 노사, 임단협 타결**

- 한진중공업은 올해 1월 설립된 새 노동조합과 9월 27일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알려짐.

- 주요 합의내용은 △기본급 15% 인상, △생활안정지원 등 1,200만 원 지급, △공휴일 축소, △전 직원 상해·질병보험 가입, △경조사 지원금 인상 등임. 또한 노사는 유급휴직 중인 생산직 직원 500여 명이 빠른 시일 내 복직할 수 있도록 신규 수주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함.
- 이번 합의안에 대해 회사 측은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 등을 결정했다”면서 “신규 조선 물량 수주를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 빠른 시일 내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새 노조 관계자는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회사 살리기에 힘을 합쳐 휴직 중인 조합원들을 빠른 시일 내에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 반면 한진중공업 기존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는 이번 합의에 대해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단체협약보다 후퇴하였다고 규탄함.

○ 회사 측은 지난해 해고된 93명의 생산직 직원들을 11월 9일부터 재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는 한진중공업이 지난해 10월 받아들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년 내 해고자 재고용 권고안’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상선 쪽은 일이 없어서 현재 일부 노동자만이 일을 하고 있다”며 해고노동자가 공장으로 돌아가도 현재로서는 곧바로 휴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함.
- 이에 기존 노조 관계자는 “복직 이후의 운영 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이에 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한편 한진중공업은 새 노조와 기존 노조가 양립해 있는 상태여서 이들 복수노조 사이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알려짐.

- 현재 새 노조가 한진중공업의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어 회사는 기존 노조가 아닌 새 노조와 임단협 합의 및 복직 문제를 협의하여 결정하였음.
- 이러한 회사의 결정에 기존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의 주도로 복수노조를 만들어 수많은 노동자가 복수노조로 이동했고, 순배기압류로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있다고 비판함.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갈등 심화**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회사 측이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갈등관계

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 2명은 10월 17일 고공농성에 돌입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송전탑 농성을 벌이면서 △현대차 불법파견 은폐와 신규채용 중단, △현대차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즉각 정규직 전환,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 정치권에 정몽구·정의선 부자 구속 등을 요구함.
-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지난 8월 노사협상 과정에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3,0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안을 내놓았고, “사내하도급 문제는 특별협의체를 통해 해결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만큼 즉각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함.

- 한편 여야 의원들은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함.
 - 야당의 한 의원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중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는 인원은 7,000여 명이라고 지적함. 아울러 무소속의 한 의원은 “2015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3,000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인원을 3,000명으로 한정할 셈”이라며 “지난해 현대자동차 순이익의 6% 정도만 있으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에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한 번에 전원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우선 3,000명으로 정규직화를 제한했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함.

◆ 금융노사, 임단협 타결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10월 15일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알려짐.
 - 주요 합의내용은 △약 400억 원 규모의 노사공동 사회공헌사업 시행,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 단축, △19시 PC 자동종료 및 근무시간 정상화 관련 항목 경영평가 반영 등임.
 - 그간 양측은 지난 4월 첫 교섭 이후 약 6개월에 걸쳐 7차례의 대표자교섭과 13차례 대대표교섭, 20차례 공식·비공식 실무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합의안에 대해 양측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사용자협의회 측은 “우리 경제사회 전체의 과제와 국민의 여망에 눈높이를 맞춰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산물”이라며 임단협 타결의 의의를 밝힘. 금융노조 관계자도 “금융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 금융 산별노사가 신규고용 창출, 비정

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차별 해소 등에 앞장서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함.

◆ **노년·청년유니언 설립신고**

- 노년유니언은 10월 2일 복지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함.
 - 노년유니언은 ‘복지시대 시니어·주니어 노동연합’이 노조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 노인 구직자와 시간제 근로자 등이 주축으로 구성됨. 노년유니언 관계자는 “노인 스스로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했다”고 설립 이유를 설명함.
 - 이들은 △노인 일자리사업 기간 7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완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증세 등 노인복지 확대와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을 정부와 사회적 교섭을 벌여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힘.
- 청년유니언 또한 10월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전국청년유니언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함.
 - 전국청년유니언은 2010년 3월 창립한 뒤 노조 설립을 신청해 왔으나 그간 고용노동부가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없는 구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며 4차례 반려함. 하지만 올해 초 “구직자도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오면서 서울, 인천, 광주 등 지자체 4곳에서 노조 설립이 인정됨에 따라 새로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임.
 - 이들은 한국노총과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와 노동조합 노동법 알리기 위한 대중캠페인 전개, △한국노총의 교섭안건에 청년의제 반영, △청년노동자 조직 확대를 위한 주기적 간담회 개최 및 공동 실태조사, △청년노동자를 위한 법률지원 등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는 10월 9일 노년유니언과 청년유니언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고, 이들이 10월 말까지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법에 따라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하고 입법적

오류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신고포상금 지급률과 관련해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부정수급액의 5%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차등 상향함.
- 고액사건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신고 1건당 현행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신고자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를 3,000만 원으로 각각 조정함.
- 수급자격자 수의 변경 등으로 유족보상연금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 1일 차액분을 유족일시금으로 환산해 추가 지급하여 유적보상연금 추가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
- 이 밖에 인용조문 착오 등 입법적 오류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이에 노동계는 산재 조사와 산재보험급여 관리에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그 책임을 산재환자에게 넘기고 산재환자를 부정수급 응모자로 매도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함.

- 한국노총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산재신고 포상금 인상안은 산재환자에 대한 인권모독에 불과하다”며 “부정수급 방지는 산재 조사 확대와 보험급여 심사기능 개선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 행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함. **[11]**

(박지은, 노동정책분석실 연구원)